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학생들이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생성형인공지능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윤리적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 청소년이 324명(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생성형인공지능을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활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의식 없이 이를 놀이문화로 혼동하는 등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의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생성형인공지능 기술활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과 윤리적활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를 통해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의 기본원리와 한계에 대한 이해, 생성된 콘텐츠의 부적절성, 편견 등 문제 인식, 허위·조작 콘텐츠(딥페이크 등) 제작·유포의 위험성 및 법적책임,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방법, 출처 표기 등 학문적 정직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기관·대학·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이 되고 있는 현재, 학생들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생성형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건전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